

“정명은 삶속의 수행 원리” 로카미트라 TBMSG 지도법사 내한

“붓다가 만약 우리의 발전을 원한다면 남의 변화를 도우라는 가르침을 내리셨을 겁니다. 이 말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새롭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로를 돕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모임인 ‘상가’가 바로 그 모델일 것입니다.” 인도 3억 불가족친의 자기각성과 변화를 이끌어온 로카미트라 법사(사진)가 6월 22~29일 참여불교재가연대 초청으로 방한했다. 24일 재가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삶과 수행의 조화, 정명을 실천하는 공동체 TBMSG’ 주제의 강연에서, 그는 1979년 창립된 TBMSG(범세계불교단우회)의 근본정신을 팔정도의 하나인 ‘정명(正命)’이라고 설명했다. “정명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올바른 생계 직업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TBMSG의 수행자들은 정명에 입각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윤리적 정진적으로 발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일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수행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바로 정명은 삶속에서 수행을 발견하는 원리가 된다고 말했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24, 25일 재가연대 강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예방, 27일 세계여성불교대회 참관을 하고 29일 출국했다. **강원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봉원사, 단오맞이 영산재 시연



서울 봉원사 영산재보존회(회장 인공)는 6월 22일 신촌 봉원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단오맞이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시연회를 봉행했다. 이날 시연회는 인간문화재 50호 영산재 준보유자 구해, 전수교육 보조자 일운 스님의 의식집 전으로 관육, 패부은, 식당작법 등이 진행됐다.

대불련동문회, 국회의원 당선 축하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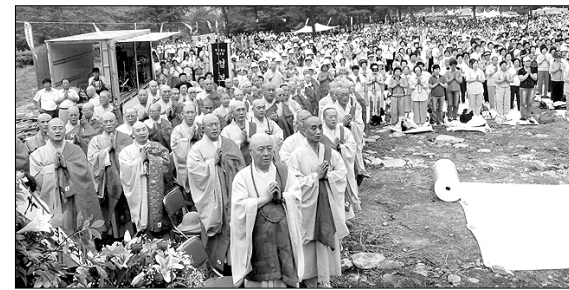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성기태)는 6월 24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제17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동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세일(한나라당), 안홍준(한나라당), 이영호(열린우리당) 의원 등 대불련 동문 1백여명이 참석했다.

강원지방경찰청 불교회, 성지순례



강원지방경찰청 불교회는 6월 20일 합천 해인사, 안동 봉정사에서 제3회 하계 성지순례를 봉행했다. 이번 순례는 강원지방청 경승단장 원형 스님을 비롯해 지방청, 강릉, 원주, 평창, 횡성서 불교회 120여 명이 동참했다. 원형 스님은 “앞으로도 경찰 불자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 생명존중 실천법회 봉행



태고종은 6월 24일 완주 봉정사에서 '은 생명운동 실천 포살 영산수륙 대법회'를 봉행하고 환경과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1만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또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무참히 피살된 김진실 씨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불자가수와 스포츠 스타들 나눔의 집 방문



불자가수 이효정 씨, 대구 오리온스 프로농구단 김병철, 박재일 선수, 스포츠 건강식품업체인 4라이프 코리아 직원 등 50여 명은 6월 20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다채로운 위문 공연 행사를 가졌다.

일주문

범어사승가대학장에 부임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최근 부산 범어사 승가대학장에 부임했다. 스님은 교육원 고시위원장, 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규 교직원 하계 수련회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은 6월 23~25일 평창 월정사에서 신규채용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상반기 결산총회
서울 성북구 불교사망연합회장 정수 스님은 6월 22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상반기 결산총회를 열고 오는 9월 구민권기 대회 등 하반기 사업을 협의했다.

진각논대상 시상식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는 6월 17일 서울 하월곡동 종인원 종학연구실에서 제6회 진각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7월 4일 수덕사서 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노옥섭 회장은 7월 4일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계사로 제5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739-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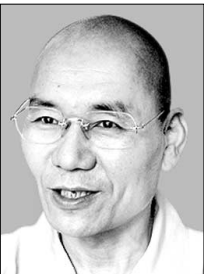
‘우주법계의 근본원리...’ 주제 강연
천문학자 이시우 前 서울대 교수는 7월 4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우주법계의 근본원리, 연기로 본 금강경’을 주제로 강연한다. (031)676-8700

봉선사에서 간부수련회 개최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오희창 회장은 7월 3~4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간부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017-353-3535

“후배들 공부에 도움 되길”

불서 3천권 중앙승가대에 기증

송강 스님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아무 상관없는 문화센터에 방치될 뻔한 귀중한 불교관련 서적들이 후학을 학문발전을 위해 쓰여 질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서울 개화산 미타사 주지로 있는 송강 스님(사진)은 최근 중앙승가대 도서관(관장 태원에) 국내·외 불교관련 서적 3000여권을 기증했다. 무려 소형 트럭 2대를 가득 채운 170상자 분량. 스님이 이렇게 많은 불교서적을 기증하게 된 것은 서울 사간동 비원 앞의 외국 서적 전문점 ‘알타이 하우스’의 조관준 사장과의 인연덕분이다. 스님은 지난 1980년 중앙승가대 재학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조 씨가 지난 2월 세상을 떠나면서 서적에 남은 귀중한 불교관련서적들을 놓고 유족들이 고민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 기증도서 가운데는 티베트장경(매염본), 미안마, 팔리어, 중국경전 같은 내전이 40%를 차지하고 그 밖의 불교학 관련 외전이 60%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희귀본 서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중앙승가대도 “이정도의 대규모 도서 기증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밝히고 6월 14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덕패를 도서관 인구에 설치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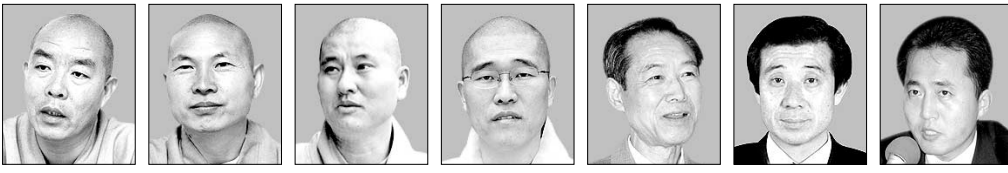
“공존의 가르침 변화 원동력”

‘노자와 붓다로...’ 특강

김형호 교수



“도가와 불교는 현실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쓸모없는 허학(虛學)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이들 사상이야말로 유용하고, 세상을 평안케 하는 신실학(新實學)입니다.” 6월 23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왜 우리는 지금, 노자와 붓다로 사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진 김형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사진)가 내린 결론이다. 김 교수는 인류의 역사를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규정하면서, 그 어느 쪽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실주의가 야기한 경제·물질주의의 부작용을 이상주의가 극복하려 하지만, 그 역시 편파적이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김 교수는 노자사상과 불교에서 대안을 발견했다. 만물을 서로 연기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들 사상은 남과 나의 공존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질서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회가 무릉도원이요. 그러나 만물의 상호의존적 거래의 존재방식을 보지 못하면 자아 중심적으로 만물을 소유하려는 욕심만 내게 됩니다.” **박익순 기자**



보광 스님, 진월 스님, 월암 스님, 정범 스님, 이평래 교수, 이치란 씨, 이동호 씨

조계종 제2기 국제교류위원회 위촉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조계종 제2기 국제교류위원회 새 위원으로 보광(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일본), 월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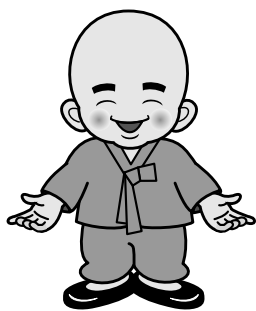
(중국 북경대 박사, 중국), 정범 스님(조계사 기획국장, 미주), 이평래 교수(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몽고 및 중앙아시아), 이동호 박사(발탁 연구소장, 유럽)와 연인하는 진월 스님(한국종교연합 대표, 미주 및 종교연대)과 이치란(아시아 씨 등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고불총림 백양사 이뿏고 하계 수련회 참가 안내

이뿏고? 참사람의 향기가 묻어나는 도량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여름 수행의 장을 마련합니다. 하루 밤의 꿈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사람의 수행을 통해 나와 남의 분별과 집착 없는 깨달음을 향해 대 자유인이 되는 길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차수	기간	정원	대상
40차	7월 28일(수) ~ 8월 1일(일)	50명 (남:25, 여:25)	20~60세 일반인
41차	8월 4일(수) ~ 8월 8일(일)	50명 (남:25, 여:25)	
42차	8월 11일(수) ~ 8월 15일(일)	50명 (남:25, 여:25)	
43차	8월 18일(수) ~ 8월 22일(일)	50명 (남:25, 여:25)	

- 참가자격 : 20세이상 60세 미만 (정원관계로 신청차수 소정의 심사로 선별)
- 접수기간 : 7월 24일(토)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접수 (신청서 요청시 팩스 발송)
- 접수방법 : 신청서류 전형
- 접수처 : 백양사 참사람 수행원
전화 : (061)392-0434, 팩스 392-0435
백양사 홈페이지 www.baekyangsa.org
- 수련회비 : 9만원 (4박 5일)
-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운동화 치장 (수련복 지급, 수련후 반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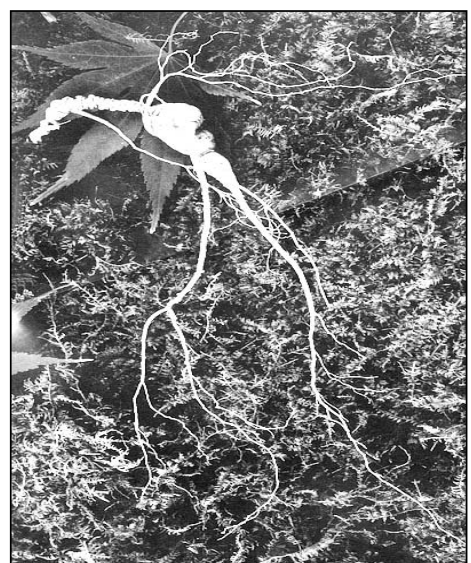


2004년 6월 일
백양사 주지 두백명공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형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후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 120가지 下蔘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황하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가지셨던 스님께 願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